

“나주 혁신도시에 119안전센터 지을테니 땅 사 달라”

전남도 소방본부 협조 공문 ‘물의’

8억여원 요청 ... 나주시 예산부족 이유 거부

소방서 청사를 비롯한 소방관련 건축물 부지를 각 지자체에서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해오고 있는 전남도소방본부가 신축 건물부지 제공을 계속 요구해 갈등을 빚고 있다.

27일 나주시에 따르면 전남도 소방본부는 지난해 10월 나주혁신도시내 ‘빛가람119 안전센터(가칭)’건립과 관련, 토지매입비 8억1300만여원을 책정해 부지제공을 나주시에 요청하고 관련 공문(사진)을 시에 보내왔다. 그러나 나주시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거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 소방본부 산하에는 나주를 포함한 10개 소방서와 ▲현장 대응단 10개 ▲안전센터 39개소 ▲지역대 113개소 ▲구조대 12개소 ▲항공대 1개소 ▲여수 소방정대 등이 배치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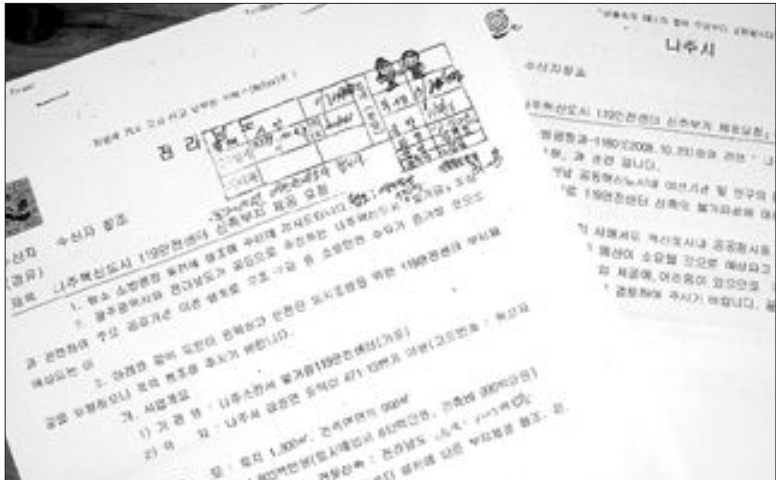
하지만 대부분의 소방관련 기관들

의 부지는 해당 지자체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구입해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로 인해 부지는 시장·군수, 건물은 도지사 명의로 등록돼있어 불합리한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전남도 소방본부는 “자치단체가 동의할 경우 부지와 건물의 이원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며 “소방업무 특수성을 감안하고 주민을 위한 기관인만큼 관련 시설에 대한 부지 정도는 제공해야 하지 않느냐”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관행적으로 계속돼 온 이 같은 행정에 따라 재정이 열악한 지역은 소방관련 건물부지 제공이 어려워 상대적으로 소방서비스 혜택이 줄어들 수 밖에 없어 개선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나주시도 지난 1999년 나주소방서 건물을 신축할 당시 5508㎡의 땅을 9



억원의 예산을 들여 매입후 소방본부에 제공해줬던 것으로 밝혀졌다.

나주소방서 관할지역인 화순군도 센터 1개소와 7개소의 지역대가 있으나 1개소를 제외한 7개소의 부지가 화순군수 명의로 되어있는 등 대부분 소방서가 설치돼 있는 지역들은 구조상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같은 불합리한 행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각 시·군에 있는 공유지

에 대해 도유지와 시·군 유지를 서로 맞교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대두되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부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어떤 법적 근거도 없는데 땅을 사달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지방자치 정신에 역행하는 것으로 시·군에 재정부담을 떠넘기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정철원기자 chungj@

나주 ‘금하 장학회’ 법인 사무실 서울 이전 추진

주민들 “설립자 상징성 사라진다” 반대 움직임

나주출신 기업인이 33년전 고향에 설립한 장학재단의 법인 사무실 이전이 가족들에 의해 추진되며 지역사회의 이견이 일고 있다.

27일 나주시민들에 따르면 봉황면 출신인 고 사장목씨는 지난 1977년 고향의 후학들을 위해 ‘금하 장학회’를 설립, 현재까지 4000여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 38억여원을 지원했다.

장학회 법인 사무실은 설립자의 생전 의지에 따라 출범 당시부터 나주시에 왔으나, 최근 사씨의 가족들이 서울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지역민들은 설립자의 숭고한 뜻을 재조명해 직계가족을 비롯한 후손들이 자긍심을 갖도록 지역사회 기여도에 대한 평가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서씨는 주민들의 원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나주시 남산공원의 팔각정을 건립해 시에 기부하고, 나주 시민회관과 봉황면민회관 등도 새롭게 신축해 기부했다.

특히 현금과 부동산 등으로 현재 45억여원이 조성된 ‘금하 장학회’는 후학들을 위한 서 씨의 고향 사랑을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임성훈 나주시장 당선자 역시 가정형편이 어려웠던 대학시절 ‘금하 장학금’을 지원받아 졸업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 강모(64·나주시 남내동)씨는 “서씨는 17세에 일본으로 건너가 사업으로 자수성가한 후 귀국해 고향을 위해 많은 재산을 기부하는 등 지역 사랑을 몸소 실천했던 인물인데도 세상이 흘러 대부분의 시민들 기억속에 잊혀져 있는 상태다”며 “장학법인 사무실이 옮겨질 경우 나주와 설립자의 상징성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최승철기자 srchoi@



쌀엿 만들기

최근 담양군이 주최한 ‘마을리더 교육’에 참가한 농업인들이 주민들의 쌀엿제조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담양군은 오는 12월까지 10회에 걸쳐 ‘농촌관광과 농촌의 미래’라는 주제로 ‘마을리더 교육’을 실시한다.

〈담양군 제공〉

영광 ‘두우리 등대’ 불밝혔다

목포 항만청 본격 운영

목포지방 해양항만청은 영광군 염산면 두우리 청우항 입구에 선박 안전운항을 위한 ‘두우리 등대’를 설치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두우리 등대는 지름 1.8m·높이 11.5m로 인근을 항해하는 어선의 주·야간 항행지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광군 염산해역은 칠산바다 백새

우와 병어·민어 등 야간조업 활황화로 야간에 운항하는 어선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다 야간이나 짙은 안개 발생시에 항 입구조차 찾을 수 없을 정도여서 연중 1~2차례 선박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김삼열 목포항만청장은 “앞으로 해양 교통시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서·남해권역 해상교통 안전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강진 ‘흰제비’ 눈길

학동마을 2마리 발견

강진에서 희귀한 ‘흰 제비’ 〈사진〉가 발견돼 눈길을 끌고 있다.

강진군 도암면 학동마을 임창평(68)씨 집에 동지틀 흰 제비가죽이 새끼를 부화한 것은 지난 4월.

이때 새끼 4마리를 부화했는데 이중 2마리가 온몸이 하얀색인 흰 제비였다. 아쉽게도 흰털이 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1마리는 죽고 현재 1마리만 어미의 보살핌을 받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

일반 제비는 등쪽이 광택이 있는 짙은 암청색이고 이마와 목 부분은 밝청색, 배 부분은 흰색인 반면 흰제비는 온몸이 흰색이고 눈동자는 빨간색으로 확연히 구분된다. 임씨는 “매년 빠지지 않고 제비가 날아와 동지틀을 틀지만 흰제비는 처음이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다도해 국립공원 서부사무소·함평 자연생태공원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홍보전사업 MOU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서부사무소(소장 황정걸)는 최근 함평 자연생태공원(소장 이광우)과 ‘다도해해상국립공원내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종(種)보전사업’ 공동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체결에 따라 양 기관은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보호에 관한 홍보와 증식보전 사업에 대한 협조체

계를 강화하게 된다.

정장방 서부사무소 보전과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다도해 해상국립공원내 멸종위기종 자생지와 서식지의 보전사업을 연계, 멸종 위기종들이 자연상태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해 주는 기본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조원남기자 wncho@

친환경농업기술 핸드북

전남대 사업단 6종 발간

전남대 친환경농업 연구사업단(단장 박노동 교수)은 전남도 농업기술원과 함께 농업현장에서 바로 적용되는 기술을 요약한 친환경농업기술 핸드북 6종(사진)과 리플렛 3종을 발간했다. 이번 발간된 핸드북은 양 기관이 지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연구수행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벼



유기재배기술 ▲상추 유기재배기술 ▲알뜰해 유기재배기술 ▲시설고추 무농약재배기술 등 6종이다.

/재희종기자 chae@

3년만에 대폭 인사

술렁이는 장흥관가

서기관급 등 27명 단행

장흥군 산하 공무원들은 물론 지역단체 및 주민들이 3년여 만에 단행되는 서기관급 이하 대폭 인사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인사폭이 큰 것은 지난 2007년 12월 이명박 장흥군수 취임 이후 이렇다 할 인사가 없는 가운데 간부급들의 퇴직 및 공로연수에 따른 결원이 많기 때문이다.

군은 지난 24일자로 ‘정기인사 사전예고’를 통해 서기관 2명은 행정직으로, 사무관 4명은 행정(2명)·시설(1명)·농업(1명), 6급 계장요원 5명은 행정(2명)·농업·시설·간호직에서 각 1명씩 등 총 27명에 대한 직렬별로 승진과 순환인사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또 군은 ‘전보인사는 전문성과 적격성 등을 감안 적재적소에 배치할

것’과 승진은 ‘경력을 최대한 우대하는 전형적인 순리’ 인사원칙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3년여 침체됐던 서기관과 사무관급의 이번 무더기 결원으로 승진 대상에 놓인 공무원들의 인사운동으로 공직사회가 술렁거리고 있다.

하지만 인사관자의 군수가 선거로 5월 한 달간 자리를 떠난데 이어 이달 들어 2차례나 ‘물 축제’ 관련 해외출장을 가는 바람에 속절없이 군수 의 종만 바라보고 있다.

인사관 인사관자의 고유권한이라는 점에서 직급별 승진 및 순환인사 폭에 대한 윤곽 또한 전혀 드러나지 않는 분위기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대인동삼일부동산

☎(FAX)223-1772 ☎011-602-2532
(광주은행 신봉점, 대인동 소방서(2차))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룬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리울공인중개사

☎(063)583-7788
☎010-8004-5900
(전북 서해안, 새만금 전문업소)

새만금-변산-고사포-려포-삼북-모항 해수욕장까지의 부지 빌트원소

▶펜션건물(투자,직영,임대)

• 대지 300평 건물 140평

: 대가 7억

- 직영시 월 수입

최저 1300만원 이상 발생

- 용자 2억 이상 가능

▶투자용 펜션 용지

• 150~300평

- 평당 50~100만원

- 해수욕장 주변으로 배산임수

를 갖춘 비다가 보이는 전망 좋

은 곳으로 투자 최적화.

▶투자용 전원주택 용지

• 150~300평

- 평당 25만~35만원

- 새만금 밀집지역을 탈피

하고 한가로이 전원 주택지

를 찾는 수요가 날로 증가하

고 있는 실정임.

●새만금 관광시대 임박

로 펜션투자시 광주지역

원목부지의 절반 금액으

로 수입은 3배이상 급리

는 25%이상 보장되는

물건만 취급

● 2010년 4월 세계에서 가

장 긴 방조제 개별로 지

금이 투자적기!

아담공인중개사

010-3616-8698
062-233-2222

나대지

• 서구 생촌동 호남대 건너편 구장군판사 1,845㎡, 제1종일반주거지역.

10m진입로. 매매가 3.3 ㎡당 160만원. 종교시설, 요양원적지.

식당. 전원주택

• 풍산구 선암동 호남대앞 3,458㎡ 3.3㎡당 100만원.

자연녹지지역 개발행위완료. 조방양호.

전원주택. 종교시설용도

• 풍산구 산월동 보훈병원앞 9,722㎡ 3.3㎡당 60만원.

자연녹지지역. 분할가능.

식당. 사옥

• 서구 마북동 서남대병원 앞 대지 1,337㎡, 연면적(2층)400.2㎡.

매매가 11억.

• 서구 동성동 구 한전앞 대지 719.7㎡, 연면적(3층) 328.9㎡.

매매가 11억.

전원주택

• 북구 화양동 대지433㎡, 전입1,994㎡ 구 주택2동.

매매가 1억8000만원. 조방 경관양호.

나대지(주택)

• 풍산구 신촌동(송정공원부근) 대지407㎡ 제2종일반주거지역.

차량전입가능. 매매가 ㎡당 25만원. 남향.

건물구합(병원 요양원, 리모델링용)

광주시내 전지역. 연면적1,000평이상.

GG경매컨설팅(주)

공인중개사 : 강영희
☎ 062-364-8700
H.P.010-4608-3700

▶아파트

지역	소재지	면적㎡/층	건평㎡	최저가
광안구	수안동	주미리1차	112/34	2억
남구	신성동	남양1차	148/45	2억7천
	주심동	영지	158/48	1억3천
	전원동	삼익2차	105/32	1억1천5백
	전원동	호반리1차	112/34	2억
	송하동	금호1차	148/45	1억9천
	금호동	무등리1차	175/58	1억9천
	학동	금호2차	175/53	2억9천
	마북동	서남대앞1차	109/33	1억2천5백
	동원동	신리	109/33	9천
	동원동	주미리	161/49	2억9천5백
	문성동	주미리	109/33	1억
	문성동	라온1차	191/58	1억9천
	삼익동	2차	138/42	1억3천5백
	안동동	한대	158/48	1억1천5백
	안동동	백산	106/32	1억9천
	안동동	신로	146/44	1억9천
	삼동	한곡리1차	109/33	1억9천
	금호동	미세리1차	106/32	1억4천5백
	신성동	백산	106/32	9천7백
	마북동	해대	157/47	1억9천5백
	마북동	최영	109/33	1억9천
	봉곡동	왕지2차	106/32	1억9천
	봉곡동	왕지1차	165/50	1억9천5백
	봉곡동	호반리1차	112/34	1억9천5백
	차량동	송동	152/46	2억9천
	광안동	동부리1차	175/53	2억9천5백
	광안동	대우2차	152/46	1억9천5백

▶상가주택

지역	소재지	대지/건물㎡	건평㎡	최저가
광안구	신성동	278/587	5억9천5백	3억9천
	신성동	225/468	4억9천5백	3억9천
	신성동	220/376	3억9천5백	2억9천5백
	주심동	622/710	7억9천5백	5억9천5백
	문성동	301/525	4억/7천4백	3억9천
	송하동	558/1318	11억2천5백	4억9천
	송하동	343/1263	7억2천5백	5억9천
	송하동	4440/1011	10억6천5백	7억9천5백
	안동동	415/2244	16억7천7백	8억9천
	봉곡동	217/449	2억9천5백	1억9천7백
	봉곡동	832/1174	18억9천5백	10억9천5백
	봉곡동	205/325	3억9천5백	1억9천5백

▶근린상가

지역	소재지	건물㎡	건평㎡	최저가
광안구	신성동	125㎡	11억9천	4억9천5백
남구	송하동	18㎡	589백	2억2천
서구	송하동	30㎡	192천	589백
	송하동	58㎡	392천5백	1억4백
	차량동	125㎡	777천	6천5백

▶근린주택

		우산동
남구 동구		월산동
		월산동
		금남동이 금남동이 송정동이
		공동
		공동
북구		자산동
		누문동
		누문동
		산인동
		용곡동
서구		운암동
		농성동
		농성동